

〈한후룡전〉에 나타난 장애 신체의 고유성과 관계적 협업을 통한 영웅성 고찰*

구선정**

〈차 례〉

1. 서론
2. 장애 인물의 신체적 고유성과 상호 협업을 통한 영웅성 확보 과정
3. 장애 신체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관계적 협업을 통한 영웅성의 변주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전소설 〈한후룡전〉을 대상으로, 장애를 지닌 두 주인공이 신체적 고유성을 통해 존재의 외연을 확장하고, 두 몸의 물질적 얽힘을 거쳐 영웅적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기존 논의가 본 작품을 신체적 결핍을 극복하는 ‘장애 극복 서사’로 해석해 온 것과 달리, 본고는 주인공들의 몸이 맺는 ‘관계적 협업’과 ‘능동적 행위성’에 주목하여 장애 인물의 몸이 지니는 문학적 가치를 재검토했다. 따라서 신체의 관계적 협업을 통해 영웅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상호보완적 결합 단계에서는 소경 한후룡과 앓은뱅이 임허영이 서로의 결여를 채우며 ‘보는 눈’과 ‘걷는 다리’가 결합된 새로운 행위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둘째, 능동적 실현 단계에서는 호랑이 포획과 금 획득 과정을 통해, 이들의 성취가 우연한 횡재가 아닌 신체적·윤리적 협업의 결과임을 규명하였다. 셋째, 사회적 가치 확산 단계에서는 재보시(財布施)를 통한 관계망 확장이 신체 회복의 기틀이 되었음을 분석하며,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 속에서 기능하는 몸의 의미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고전연구학회 133차 동계학술대회에서 ‘소외된 몸과 물질성, 그리고 고전문학’이라는 기획주제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강사

를 도출하였다. 넷째, 공간적 통과이레 단계에서는 무덤이라는 경계를 경유하여 물질적·초월적 권위를 획득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영웅적 주체로 승인받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 신체를 둘러싼 이중적 시선의 포착이다. 작품은 가족과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주인공들의 여정을 통해 장애 신체가 지닌 관계적 역동성과 능동성을 부각함으로써 당대 인식의 한계를 전복시킨다. 다음으로, 관계적 협업을 통한 영웅의 출현이다. <한후룡전>은 주인공들이 신체를 회복하여 ‘완인(完人)’이 된 이후에도 영웅적 과업을 시종일관 공동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영웅성이란 한 개인의 비범함이 아닌 ‘관계적 연대’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한후룡전>은 장애 신체를 결함으로만 보지 않고 연대의 토대로 삼아 관계적 협업을 통해 영웅성을 함께 수행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영웅소설의 전형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영웅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주제어 장애인, 장애 신체(몸), 관계적 협업, 영웅성, 신유물론, <한후룡전>

1. 서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의 존재를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객체로 규정한다. 근대는 이러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이분화하였으며, 인간다움의 본질을 ‘정신’과 ‘사유’에서 찾고 ‘몸’은 배제와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했다. 결과적으로 사회 규범과 권력 구조는 ‘정상성·완전성·건강한몸’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몸’은 비정상이나 결핍으로 규정하며 타자화했다.

‘소외된 몸’이란 전통적인 이론이나 제도권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배제된 물질적·신체적 존재를 의미한다. 특히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몸’은 정상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정(不淨)되거나 쓸모없음(無用)’으로 규정되었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근대에 정착된 ‘장애(障礙)’라는 용어 역시 ‘막을 장(障)’과 ‘거리낄 애(礙)’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조선 시대에는 이들을 ‘병신(病身)’이라 지칭하며 그 가치를 축소해 왔다. 몸을 중심으로 정상/비정상, 주체/타자, 우/열, 강/약, 유시(有視)/무시(無視), 동화(同化)/이화(異化)를 뚜렷이 구분하는 성향이 ‘병신’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¹⁾

고전문학에서도 장애인이 점차 서사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경과 앓은뱅이’를 소재로 한 서사가 두드러진다. 이는 시각 장애를 지닌 소경이 보행 장애가 있는 앓은뱅이를 업어 서로의 신체적 결핌을 보완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상호보완적 서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²⁾ 이러한 이야기는 속담과 결합하여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의 형태로 전승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소설 장르로까지 확장되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한후룡전>이 있다. <한후룡전>은 조실부모한 인물이 등장하는 설화 ‘지성이와 감천이’의 구도와 달리, 주인공의 부모를 서사 전면에 배치하며 영웅 일대기 양상 또한 띠게 함으로써 설화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특히, 외모와 신체 모두 완벽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상정하는 고소설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주인공

1) 처음 병신이라는 말에는 어떤 시선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지만, 18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경멸어로 사용됐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서민들은 구비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담론 형식을 통해 사회적 강자인 양반을 무능하고 아둔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로 희화화하는데, 이때 병신(病身)이 사용된 것이다.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視線)-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

2) 소경과 앓은뱅이는 불교적 비유로 활용되면서 업, 윤회, 인과율, 인연, 연기 등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며 종교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다가 ‘지성이와 감천이’ 등의 구비문학으로 수용되면서 불교적 맥락이 축소되고 ‘협력’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 강조되면서 전국적인 전승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신호림,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회, 2013, 11쪽.

공으로 서사의 중심에 세웠다는 점은 이 작품만의 독보적인 차별성이다.

〈한후룡전〉은 눈이 먼 한후룡과 걸을 수 없는 앓은뱅이 허영이 만나 유리결석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기존의 논의들은 이들이 초기에 가족들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점과 결국 장애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소설을 신체적 결핍을 극복해가는 '장애 극복 서사'로 해석해 왔다.³⁾ 따라서 본 소설을 관통하는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라 보았다. 즉, 장애를 그 자체의 삶이 아닌 반드시 탈피해야 할 부정적 상태로 간주하는 소설이라 본 것이다. 본 작품이 비장애인 관점에서 정상성 이데올로기 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본 논의도 기존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⁴⁾

그러나 두 주인공의 변화가 각각의 몸이 지닌 고유성과 존재 간의 신체적 협업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몸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후룡전〉을 단순한 장애 극복 서사로 읽기에는, 두 인물이 보여주는 신체적 능동성과 존재 간의 관계적 협업이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은 고정된 한계가 아니라, 여정 속의 다양한 요소들과 얽히면서 새로운 변화를 산출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장애를 단순한 극복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이분법적 서사 구조에서 벗어나, 주인공의 몸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관계

3)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의 연구』, 교학연구사, 1985, 398~401쪽.; 김미리, 「〈한후룡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07쪽.; 구선정, 「장애인 간 연대를 통한 치유-〈한후룡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59~188쪽.; 구선정, 「〈한후룡전〉·〈유화기연〉·〈영이록〉에 나타난 '장애인'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241~278쪽.; 구선정, 「조선 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죄벌(罪罰)을 통해 본 소수자 혐오 양상과 그 의미-추모(醜貌)·귀물(鬼物)·유충(幼蟲)·병신(病身)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77~109쪽.

4) 제하나, 「고전 서사 속 장애 담론의 비장애중심성 탐색: 〈한후룡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6집, 한국고소설학회, 2023, 241~280쪽.

적 얽힘에 집중할 때, 본 작품에 나타난 장애 몸의 본질과 영웅적 형성의 실체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 신유물론이 부상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물질·자연·타자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인간 중심적이며 폭력적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⁵⁾ 따라서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는 관점 속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들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⁶⁾ 물론 현대 이론을 고전 작품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되고 억압되어 온 존재들의 가치를 다시 묻고 재배치하려는 신유물론의 시각은⁷⁾ <한후룡전>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해석적 틀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장애인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 속에서 비인간적인 존재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장애의 몸을 지닌 두 인물이 몸의 결합을 바탕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능동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변화를 생성한다는 점에 주목할 때,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을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인식하기에 이 이론이 매우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고는 <한후룡전>에 등장하는 소경과 앓은뱅이인 두 인물의 신체적 몸의 결합, 그리고 이들이 영웅이 되기까지 인물·사물·사건과 맺는 관계망을 추적함으로써 장애 인물의 몸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한후룡전> 속 장애인의 몸을 결핍이나 극복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서사 전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인 실체로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독해 방식이라 할 수 있다.⁸⁾

5)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낯, 2024, 21쪽.

6) 위의 책, 27쪽.

7) 위의 책, 29쪽.

2. 장애 주인공의 신체적 고유성과 상호 협업을 통한 영 응성 확보 과정

1) 상호보완적 결합: 소경과 앓은뱅이의 신체적 고유성과 연대

<한후룡전>에서 한후룡은 두 눈이 희고 눈동자가 분명치 않은 상태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끝내 천지를 보지 못하는 맹목(盲目)의 장애를 지닌 인물이 된다.⁹⁾ 그는 대소변조차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일상생활 전반을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¹⁰⁾ 이로 인해 부모는 한편으로는 그를 붙잡히 여기면서도, 이러한 아이를 낳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한다. 한편 이웃에 사는 임허영 역시 걷지 못하는 장애를 지닌 인물로¹¹⁾, 열두 살이 되었음에도 다만 앉아서 집을 지키거나 곡식을 돌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임허영의 부모도 그를 ‘일무가 취(一無可取)’¹²⁾하다고 여기며 탄식한다. 이렇게 부모의 시선에서 자식들

8) <한후룡전>의 이본으로는 규장각 소장 필사본 1종과 정학성 소장 활자본 1종이 전한다. 1919년에 간행된 활자본은 필사본에 비해 두 주인공이 장애로 고난을 겪는 장면이 간략하게 요약된 반면, 군담(軍談) 부분은 확대되어 있어 필사본보다 후대에 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필사본에는 ‘임진년’에 필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웅소설이 활발하게 유통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 임진년은 1892년 일 가능성이 높다. 두 이본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김미리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김미리, 앞의 논문, 2001.12~22쪽) 따라서 본고는 선본이라 할 수 있는 규장각 본을 기본 텍스트로 한다.

9) “양안이 희고 동지 분명치 아니커늘 부뵈 깃거하는 중 7장 고이허 녀이더니 으히 점점 즈라 디인하여 텨디를 보지 못호고 맹목 병신이 되니 부뵈 그 형상을 가궁이 녀이며 신세를 슬허허더라.” <한후룡전> 권지일.

10) “후룡이 점점 즈라디 디소변을 임의로 못보고 미양 부뵈 닛그러 후정의 출입허디 일변 불상이 녀이며 일변 괴로이 녀이를 마지아니허더라.” <한후룡전> 권지일.

11) “동니의 넘싱지 잇서 흐호 무즈하다가 늦게야 일기 남즈를 넘흐니 안즌병신이라. 점점 즈라나 능히 것지 못호고 괴여 단니미 부모 괴로오를 견디지 못하여 흐더니~” <한후룡전> 권지일.

12) “나히 십이세의 니르러 다만 괴로울 썬이요 일무가취라.” <한후룡전> 권지일.

이 앞을 못 보고 걷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 결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가족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후룡의 부친이 임허영의 부친에게 “그 아이는 비록 앓은 병신이지만 두 눈으로 가사를 돌볼 수 있으니 우리 아이보다 낫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쓸 곳이 전혀 없다.”¹³⁾라고 하며 자신의 아이와 비교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들의 몸은 부모에게 쓸모가 없다고 인식되며 고통의 원인이 되어 결국 사회적·가족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몸적 존재가 되게 한다.

열세 살이 된 한후룡은 더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에 이른다. 그는 임허영을 찾아가, 우리들의 처지가 전생의 죄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기에 집을 떠나 유리결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제안한다.¹⁴⁾ 이 장면은 장애를 지닌 존재가 ‘쓸모없음’으로 인식되는 현실 속에서, 죽음과 생존 사이의 극단적 선택 앞에 놓인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룡이 자기 몸의 쓸모없음을 수긍하거나 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부모를 떠나서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공동의 위기를 공유하는 타자와의 결합을 통해 생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리결식이라는 선택은 타인의 보호나 도움에 기대기보다는, 동일한 처지의 존재와 연대하여 생존을 도모하려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가출을 감행하

13) “그 아히는 오히려 니 집 으히보다 낫도다 그 으히는 비록 안즌 병신이나 양안으로 보미 안저서 가사를 보슬필망정 부모기 괴로오른 별노 업거니와 우리 아히는 쓸곳이 전혀 업다.” <한후룡전> 권지일.

14) “우리 양인이 전생의 죄악이 심중하여 만고 질이 병신이 되엿는지라. 이제 부모기 효도 잇지 못하고 도로혀 근심이 되게 하니 스라 쓸쳐 업스나 참아 엿지 죽으리요. 출하리 이제로부터 집을 떠나 저지의 빌어먹어도 부모의 걱정은 덜터이니 너의 소견은 하여요.” <한후룡전> 권지일.

며 유리걸식의 삶을 이어가는 행위는, 장애를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강조한다.

한후룡은 시각을 상실했으나 걷는 능력이 온전하고, 임허영은 걷는 것은 불가능하나 시각은 온전하다. 이로 인해 한후룡에게는 임허영의 ‘보는 눈’이 필요하고, 임허영에게는 한후룡의 ‘걷는 다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인물의 신체가 결핍과 완전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서로 다른 감각과 기능이 관계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데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후룡의 몸은 이동을 통해 공간을 감각하는 신체로 기능하고, 걷지 못하는 임허영의 몸은 시각을 통해 길을 인도하는 신체로 기능한다. 두 사람은 한 명이 엮고 다른 한 명이 앞을 보는 방식으로 이동하기를 합의하는데, 생존을 목표로 각기 다른 신체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하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허영이 한후룡의 등에 업히는 순간, 이들은 ‘보는 눈’과 ‘걷는 다리’가 결합된 새로운 행위 가능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때 두 인물을 연결하는 매개가 특정한 도구나 사물이 아니라, ‘두 신체의 결합’에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신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결합을 통해 기능과 의미를 새롭게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⁵⁾ 즉, 결합을 가능하게 한 ‘등업음’은 단순한 이동 방식이나 도구가 아니라, 몸과 몸의 결합으로 이들을 능동적 행위자로 전환시키는 매개¹⁶⁾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장

15) 제인 베넷이 제시한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은 사물을 인간의 도구나 수동적인 죽은 물질로 보지 않고, 능동성을 지닌 채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즉, 사물은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활력과 생명력을 지니며, 어떠한 ‘배치(Assemblage)’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영향력을 획득하는 능동적 행위자가 된다.
(임지연, 「제인 베넷의 <생동하는 물질>」, 『신유물론: 몸과 물질의 행위성』, 필로소픽, 2022, 111~138쪽.)

16) 카렌 바라드도 그의 저서 『우주의 중간에서 만나기(Meeting the Universe

애를 단순한 보완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몸들의 관계적 협업을 통해 새로운 행위성이 창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한후룡과 임허영이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유리걸식하는 삶은, 보호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고정된 가족 질서에서 이탈하며 관계적 매개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실천 행위임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한후룡 모친의 태몽에 등장하는 ‘깨진 기와’의 상징성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태몽에서 한 노승은 깨진 기와를 건네며 이를 ‘지극한 보물’이라 명명하는데, 모친은 기와가 깨졌다는 이유로 버리고 오다가 잠에서 깬다.¹⁷⁾ 결국 모친의 꿈에 노승이 다시 돌아와 깨진 기와를 던지면서 한후룡이 태어난다. 물론 ‘깨진 기와’는 신체의 일부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 즉 장애를 은유한다. 그러나 깨진 기와를 보물로 여기며 이를 버린 어머니를 비난하는 대목은, 겉모습이 온전치 못한 존재라도 귀중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한후룡의 부친이 아들의 비범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쫓은 아내를 나무라는 장면에서도 다시금 증명된다. 이 장면에서 작품은 장애인을 배척하고 내쫓는 가족과 사회의 태도를 문제 삼는 한편, 장애를 쓸모없음이 아니라 잠재적 귀함의 징표로 재위치 시킨다. 이처럼 <한후룡전>은 ‘깨진 기와’라는 상징과 가족 인물들의 후회와 각성을 통해 장애를 결핍이나 배제의 이유로만 고정하지 않고, 서사적·윤리적 차원에서 새롭게 사유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Halfway)』를 통해 신체를 고정된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내부-작용(Intra-action)’을 통해 형성되는 현상으로 보았다. 인간의 몸과 비인간(사물, 기술, 환경)의 몸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관계망 안에서 함께 생성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신현, 『캐런 버라드의 『우주와 중간에서 만나기』: 관계와 얽힘으로 만들어지는 몸』, 『신유물론: 몸과 물질의 행위성』, 필로소픽, 2022, 159~194쪽.)

17) “흔 노승이 압히 나아와 절하고 한낫 찌여 진 기와를 주며 왈, 이 기와 지극한 보물이 미 드리나니 가져가소서.” <한후룡전> 권지일.

2) 능동적 실현: 호랑이 포획과 금 획득을 통한 주체적 역량 발휘

한후룡과 임허영의 첫 번째 위기는 산세가 험하고 나무가 울창한 탄막현 고개를 건너는 중에 발생한다. 후룡이 허영을 등에 업고 이동하고 있었으나, ‘보는 눈’이 허영에게 있는 까닭에 이들의 행보는 다소 느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극심한 배고픔과 갈증이 더해져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겨우 앉아 쉬게 된다. 이때 호랑이가 멀리서 이들에게로 달려드는데, 허영은 건지 못하는 몸이기에 도망치지 못하고 대신 범의 꼬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고, 후룡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각오한 채 달아났다. 즉, 허영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후룡이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후룡은 달아나다 결국 기절하고 마는데,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후룡을 구해준다. 그리고 깨어난 후룡은 행인과 함께 울부짖는 호랑이의 소리를 따라 허영을 구하러 간다. 그리고 큰 나무 사이에 몸이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호랑이와 그 꼬리를 붙잡은 채 버티고 있는 허영을 발견한다. 후룡과 행인은 허영이 붙잡고 있던 호랑이의 꼬리를 놓게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 함께 나무에 끼어 있는 호랑이를 잡는다. 이어서 관가에 호랑이를 바치면서 은자 수십 관을 상으로 받는다.

“기인이 인하여 후룡을 다리고 범의 소리를 조처가니 과연 산곡의 향우긋든 범 흥느히 큰 나무 스이의 끼이여 드도나도 못호고 혼 스람이 범의 꼬리의 달너 거늘 자신보니 병신 으헨라. 인하여 크게 소리하여 왈, 이제 범을 잡은 비 되어 스니 꼬리를 노코 혼 가지로 마을의 내려가 스람을 모화 다리고 범을 잡아 관가의 드리면 중상이 이시리라.”¹⁸⁾

임허영이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아 큰 나무 사이에 끼게 만드는 대목은

18) <한후룡전> 권지일.

매우 흥미롭다. 도망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 역설적으로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허영-호랑이의 꼬리-큰 나무’는 몸과 사물이 얽혀 형성되는 사건으로 구성된다. 특히 호랑이를 고정시키는 나무의 물리적 틈이 임허영의 신체와 밀접하게 배치됨으로써, 혼자서는 불가능한 호랑이 포획이라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임허영이 여전히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은 채 고정된 상태에 머무르는 동안, 사건을 외부로 확장하는 매개는 호랑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후룡은 이 소리를 듣고 사건의 위치를 판별하고, 행인과 함께 호랑이를 붙잡고 있는 임허영의 현장에 도달할 수 있었다. 결국 호랑이 포획의 성공은 임허영의 신체적 고정성, 한후룡의 이동하는 다리, 행인의 발견 그리고 나무와 소리라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이루어진 협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허영을 업고 그 마을을 썰나 헝헝더니, 혼 곳에 다다라 허영이 이르더 저기 금이 있다 헝거늘, 후룡 왈 얼마나 크뇨. 허영 왈, 크기 혼아름이나 되는 덩이니 형이 가히 뉘하여 가지라. 후룡 왈, 나는 눈이 업서 보지 못했었고 형이 임의 보았시니 형이 가지라. 허영 왈, 불연하다. 니 비록 눈이 이시나 형의 거름이 아니면 엇지 이곳에 니르러 금을 보리요. 형이 맛당히 가지미 올흐니라. 냥이 서로 금을 사양하다가 인하여 바리고 혼 곳의 다다라 허영이 일오디, 저기 안즈 쉬여가즈 헝거늘 후룡이 잠간 쉬더니, 혼 스람이 꺾티와 안자 희허장탄하다가 통곡헝거늘.....”¹⁹⁾

한후룡과 임허영은 호랑이를 잡은 공으로 받은 수십 관의 은자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건네는 음식도 사양한 채 다시 길을 떠난다. 이어 길을 가던 중 임허영이 큰 금 한 덩어리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19) <한후룡전> 권지일.

서로 그 금을 양보한다. 임허영은 후룡의 보행 즉 다리의 물질적 기여를 우선시하고, 한후룡은 임허영의 발견 즉 시각적 판독을 우선시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신체에 공을 넘기면서 양보하다가 끝내 금을 버리고 떠난다. 이렇게 금의 발견은 임허영의 눈과 한후룡의 다리라는 신체의 능동적 행위가 결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후룡과 임허영은 다시 길을 나선 도중에 울고 있는 한 행인을 만난다. 행인은 타인의 재물을 크게 불러주는 일을 하는 장사꾼으로, 도적에게 모 든 재물을 빼앗겨 맡은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고 탄식한다. 그의 사정을 들은 한후룡과 임허영은 앞서 두고 온 금의 위치를 알려주며 서둘러 가져가라고 권한다. 그러나 반신반의하며 그곳으로 향한 행인 앞에 금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민 채 달려드는 한 마리의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행인은 놀라 급히 칼을 빼 내리쳐 구렁이를 두 동강이 내고서야 겨우 목숨을 건진다. 그리고 되돌아온 행인은 “몹쓸 병신 아이들이 나를 속였도다”²⁰⁾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무수히 구타하고 떠난다.

“양의 서로 알너 왓, 일이 심히 고이하고 의심이 되지 촛즈가 진가를 찌치미 울타하고 인하여 허영을 업고 그곳에 나아가 본즉, 그 금이 가온디 끈히여 완연이 두 조각이 길히 노혔거늘 후룡 왓, 우리 스양하고 가지지 아니호엿더니 텃신이 짐짓 횡인으로 호여금 들히 난화시니 이는 반다시 하날이 쥬시미라. 하날이 쥬시물 밧지 아니면 반슈기양이라 호여시니 각각 그 반식 가지미 엇더호는 허영 왓, 가타하고 드더여 각각 일편 금을 가지고 횡호여 혼 마을의 니러러 걸식호더라.”²¹⁾

한후룡과 임허영은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겨 진위를 확인하고자 다시

20) “이 몹쓸 병신 〇히 나를 속이도다 호고.....” <한후룡전> 권지일.

21) <한후룡전> 권지일.

금이 있던 곳으로 향한다. 그러나 행인이 말했던 구렁이는 보이지 않고, 대신 조금 전 보았던 금이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결국 두 사람은 하늘이 행인을 통해 금을 둘로 나누어 가지게 하려 한 것이라 여기고 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다. 금은 욕심 많은 행인 앞에서는 무서운 구렁이로 변하지만, 한후룡과 허영 앞에서는 다시 금이 된다. 이는 금도 고정된 본질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주체의 태도와 맺는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준다. 행인이 구렁이를 칼로 내리친 사건은 역설적으로 금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 두 주인공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따라서 이 금은 우연한 황제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이동해 온 두 인물의 신체적·윤리적 협력이 만들어낸 정당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적 가치 확산: 재보시(財布施)를 통한 관계망 확장

한후룡과 임허영은 관가에서 하사받은 막대한 은자를 마을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우연히 발견한 금마저 행인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물욕에 매몰되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타자와의 정서적·윤리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개금불사(改金佛事)로 이어지는 이들의 재보시(財布施)는 물질을 공적 가치로 치환함으로써, 영웅적 과업 수행을 위한 윤리적 토대와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결과를 낳는다.

화약산 천보사에서서는 불상에 금을 칠하는 시기가 돌아와 승려들이 사방으로 금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년간 시주를 받아도 금이 모이지 않자, 어느 날 한 스님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 금호촌으로 가면 두 병신 아이가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서 금을 구하라고 일러준다.²²⁾ 스님은 이 계시에 따

22) “네 아무리 다녀도 쓸데없을 것이니 내일 금호촌에 가면 두 병신 아허가 잇실거시니 그 두으히게 금을 구하면 어들 터이니 어셔 가라 호고 죽장을 들어 치거늘.....” <한후

라 한후룡과 임허영을 찾아가 불상 개금을 위한 시주를 부탁한다. 이에 한후룡은 허영에게 금은 더는 쓸모가 없으니 부처님께 바쳐 훗날의 복을 기원하자고 제안하고, 허영 역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²³⁾ 결국 두 사람은 금 두 조각을 스님에게 내어주며 불상에 개금하는 데 시주한다. 한후룡과 임허영이 부처에게 금을 바치는 행위는 재보시(財布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보시는 단순한 재물 보시에 그치지 않고, 두 인물이 지닌 장애의 몸이 관계적으로 결합되어 생성된 결과물을 다시 불법과 공동체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

“후룡 왈, 허영이 금을 모도 어든 비니 저 슈지 디시쥬되리라. 허영 왈, 후룡의 형뵈 아니면 엇지 금 잇는디 니르러 금을 보리요 저 슈지 디시쥬라하여 서로 스양하여 츠례를 정치 못하니 스승이 같오디 금 본 지 디시쥬 될 듯하이다 하고 인하여 허영으로 디시쥬를 하고 후룡으로 버금을 하여 두 시쥬로 하여금 불전의 나이가 정결이 꾸러 안고 송경을 축원홀시.....”²⁴⁾

개금하는 날이 다가오자, 스님은 두 사람에게 누구를 대시주로 삼을 것 인지를 묻는다. 이에 후룡은 금을 발견한 공이 허영에게 있다고 말하며 그 공을 허영에게 돌리고, 허영은 후룡의 보행이 아니었다면 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 하며 그 공을 다시 후룡에게 양보한다. 그러나 스님은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두 사람의 사정을 들은 뒤, 결국 금을 발견한 허영을 대시주로 삼는다. 이는 금의 획득 과정에서 이동보다 시각을 더 중시하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장애를 기능성과 유용성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작품

룡전> 권지일.

23) “후룡이 허영다려 왈, 우리 저 금은 쓸터업스니 부처기 드리고 후시 길이나 닥그미 하여오 허영이 낙다하고 금두덩이를 니여쥬니.....” <한후룡전> 권지일.

24) <한후룡전> 권지일.

의 최종적인 평가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호랑이 사냥이나 금 발견과 같은 결정적 장면에서 특정 장애 유형이 우위에 있기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몸의 결합과 상황적 얽힘 속에서 결과가 생성되는 만큼, <한후룡전>은 장애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위계를 그대로 승인하기보다는, 그러한 사회의 시선이 장애의 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동시에 그러한 시선을 무력화하고 있다.

“불영전의 빅비축원호습나니 소동 등이 죄악이 삼심의 지중호와 병신 중 말 짙이 되어 하나흔 눈이엿서 텃디만물을 보지 못호습고 하나흔 양각이 전국 불신호와 썩홀 임의로 뵈지 못호오니 세상이 모다 금수만도 못녀여 안호의 업슈히척이고 부피 쏘호 쫄디업스 즈식으로 알아 괴로오를 견디지 못호여 근심호오니 부처의 무량호신 범역을 입스와 후세의나 완인이 되를 바라습나이다 호엿더라. 축원을 밧고 지를 파호디 물너와 반스의 도라왔더니 초야를 즈고 나니 문득 허영은 다리 찌러져 흥보를 능히호고 후룡은 양안이 쓰이여 완전호 슨람이 되엿는지라. 양인이 괴이히 녀여 다시 불전의 노가 슨레호고 들이 의논호디, 우리 병신이 되어 남의게 천디를 밧고 부모의게 불효를 끼쳐 인즈지되 일본도 업더니 이제 텃헝으로 불영신우호시를 입어 일시의 악병을 덜고 완인이 되어 능히 흥보를 임의로 조히호며 능히 텃디만물을 보니 엿지 깃부지 아니며 쏘 엿지 기결호싱호리요. 남지 세상의 처호며 입신양명호여 반농부봉호며 출장입상호고 화협인각호여 일흠을 죽릭의 들이오미 장부의 쾌시라. 엿지 즐겁지 아니리요 호고 인호여 그 결의 처호여 학업을 힘쓸시 쥬야로 글을 읽어 빅곱푸면 송업을 먹고 치우면 괴를 안아 어한호며 기름이 업스면 반디불을 모화 넘기를 힘써고 셔를 아니아니본거시 업더니.....”²⁵⁾

한후룡과 임허영은 부처에게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금수만도 못하게 업신여기고, 부모들마저 쓸모없는 자식으로 여겨 고통스러웠던 현

25) <한후룡전> 권지일.

실을 아뢰며, 그 괴로움을 더는 견딜 수 없으니 후세에는 완인이 되게 해달라고 빈다. 그 결과 다음 날 허영은 떨어졌던 다리가 회복되어 걸을 수 있게 되고, 후룡은 감졌던 두 눈이 떠져 걸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두 인물은 금을 사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불상 개금에 시주함으로써, 그 공덕의 결과로 신체의 온전함을 되찾게 된다.

물론 두 인물의 윤리적 실천이 ‘탈(脫)장애’라는 보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서사적 한계이자 정상성 중심의 인식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후룡전>에서 ‘탈(脫)장애’는 영웅의 일생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행 과정일 뿐, 영웅적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조건이나 극복의 과제로 설정되지 않는다. 한후룡과 임허영이 완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서로의 신체를 매개로 이동하고 생존하며 윤리적 선택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몸은 완전성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 속에서 기능하고 의미를 생산해 왔다. 즉 후룡의 보행과 허영의 시각은 각각 분리된 능력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행위의 조건으로 작용하며, 두 인물은 이러한 신체의 협업을 통해 금의 발견, 시주, 그리고 공덕의 축적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완인으로서의 전환은 서사적 보상으로 제시되지만, 그 이전의 장애 상태 역시 이미 공동 행위와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유효한 신체였다는 점에서, 작품은 장애를 결핍과 완전성이라는 이분법 속에 완전히 가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공간적 통과예: 무덤을 경유한 변모와 영웅적 주체로서의 승인

<한후룡전>이 단순한 장애 극복 서사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신체의 회복이 곧 영웅 서사의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신체적 복구 이후에도 영웅적 행보가 확장된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지향점이 단순한 ‘정상성 회복’ 그 너머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완인’이란 고정된

상태나 최종 도달점이 아니라, 인물·사건·사물·제도 등이 상호 얽힌 관계망 속에서 영웅성을 생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특히 장애에서 벗어나고도 주인공에게 계속 위기와 시험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장애 극복은 곧 정상이라는 단선적 서사를 〈한후룡전〉이 해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후룡전〉은 완인이 되는 과정을 1권으로 마무리하고, 2권에서는 장수가 되어 나라를 구하는 영웅 서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과거 급제와 금의환향, 전쟁 출정과 승리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거치며 다양한 요소들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할 때 비로소 이들은 영웅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영웅화의 과정 역시 한후룡과 임허영이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두 인물의 장애는 개별적 결핍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즈를 명하여 경익을 주시니 냥이 빛아 먹으니 신천꿀냉하여 정신이 더욱 씩씩하더라. 상제 인하여 턴셔와 디리 두권을 주시고 또 디록 혼 권을 주시며 곶오스디 경이 이제 쌀니 진간의 내려가 이 턴셔를 힘써 보며 또 운무산 조화동 바회 밋히 터아검이 이시니 그 칼을 취하여 스희를 진정하라 하시니, 후룡 등이 빅빅사은 흐직하고 켈문을 나오니, 상제 동즈를 명하스 진간으로 내려가게 하시다.”²⁶⁾

“..... 다시 신을 메고 슈리는 가니 운무산이 뵈거늘 심중의 것거 쌀니 녹은가 암상의 올으니 그 바회 거후러져 몸이 쏠니여 굴형의 썩러지니 그 바회 또 구울너 느려 몸의 지질너 가삼이 심히 답답하여 견디지 못홀너니 이윽고 광풍과 빙박이 디작하여 비스썩썩하여 큰비 붓다시 오며 뇌정벽녀이 텃디진동하더니 문득 바회 구울너 가고 텃디 명낭하여 월식이 조요(照耀)하거늘 정신을 슈습하여 좌우를 슬퍼보니 첩첩한 산중이요 몸이 혼 굴형의 안졌는지라. 손으로 몸을 만

26) 〈한후룡전〉 권지이.

즈보니 미동헌 즈취 잇고 몸의 흑나삼을 낚어서며 발의 흥나혜를 신엇거늘 후룡이 디경하여 썰니 굴형의 괴어나니 혼 고총이다. 또 그 겹출 슬피니 허영이 또흔 고총으로 조즌 괴어나오거늘 후룡이 밧베 나으가 허영의 손을 잡고 굴오디 이 엇진 일이뇨 하고 서로 의아함을 마지아니하더니. 이윽고 후룡이 굴오디 진실노 지난 일은 남가일몽이라. 이제 생각건터 그 도적이 우리 육신을 이 속의 장허미라 하고 인하여 그 굴형의 늑아와 갈바를 몰나 하다가 후룡이 허영 다려 왈, 우리 이곳의셔 오리 두류홀 곳이 못되니 운학산 즈화동을 오가미 엇더하뇨. 허영이 조타하고 손을 닛그러 촌촌전전하여 운학산 즈화동의 니르니.....”²⁷⁾

한후룡과 임허영은 천보사에서 학업에 매진하던 중 도적 유필에게 납치되어 그의 사위가 되며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꿈속에서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는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위태로운 명실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들의 의지를 들은 옥황상제는 정신을 맑게 하는 경액을 마시게 하고, 천서와 지리서 두 권, 대륙과 태아검 등을 하사한 뒤 두 사람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도적 유필은 두 사위가 죽었다고 여겨 이미 장례를 치르고, 그들의 시신을 땅에 묻은 뒤였다. 꿈에서 깨어난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덤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운학산 자하동의 천보사로 되돌아간다.

이 장면에서 무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치한 공간으로 기능하며, 한 후룡과 임허영이 영웅으로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과 의례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두 사람은 무덤이라는 매개를 통해 초월적 존재로부터 천서와 지리서, 대륙과 태아검 등 영웅에게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을 부여받는다. 이처럼 관계망을 경유한 획득 과정을 통해 이들은 개인적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무덤의 통과를 통해 영웅의 몸으로 재구성되며, 사적인 차원을 넘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전환된다. 특히, 천

27) <한후룡전> 권지이.

서, 지리서, 태아검 등은 두 인물의 신분적 도약을 가시화하는 물질적 장치이다. 이 물질들은 인물이 영웅적 자격을 갖추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서사적 증거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후룡과 임허영은 천보사로 귀환한 뒤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한다. 그리고 집으로 금의환향한다. 이어 과거 이들을 사위로 삼았던 도적 유필이 반란을 일으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두 사람은 다시 출정하여 도적 유필을 생포하고 난을 평정한다. 이후 간신 이열창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지만,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통해 군주의 혼암함이 드러나고, 두 사람의 충성과 공적은 다시 한번 인정받는다. 그 결과 한후룡은 좌승상, 임허영은 우승상에 임명되어 국정을 함께 이끌게 된다. 이처럼 두 인물의 상보적인 조화를 통해 혼란했던 천하는 질서를 회복하며 비로소 태평성대의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일련의 서사는 영웅성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공의 몸을 중심으로 한 관계적 협업을 바탕으로 과거급제·도적사위·전쟁·군주·초월적 권위 등 다양한 사건을 거치며 반복적으로 검증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두 인물이 자신의 성공을 개인의 능력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은인을 다시 호출하고 보답함으로써, 영웅 주체가 관계망 속에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데에서도 확인된다.²⁸⁾ 특히 두 주인공의 장애인 몸은 이들이 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협력을 전제로 한 관계망을 형성하게 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들에게 무덤은 단순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영웅적 자격을 검증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통과 의례의 장(場)으로서 기능한다.

28) “후룡이 모든 은인을 다 청하여 각각 상스(賞賜)홀시 회악산 텃보스 노승을 오천금을 주어 절을 중수(重修)하게 하고 석마촌 녹운형은 천금을 주고 모든 은인을 다 상스하고 치하하니라.” <한후룡전> 권지이.

3. 장애 신체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관계적 협업을 통한 영웅성의 변주

1) 장애 신체에 대한 이중적 시선

근대는 인간과 자연,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라는 견고한 이분법적 구조 아래 장애를 결핍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인 몸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러한 존재는 사람에게 의해 보호되어야 하거나 통제받으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행하기 어렵기에 수동적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²⁹⁾ 따라서 장애학의 토대에서 신체적 차이를 유발하는 변이는 변칙이나 기형으로 분류되어 비정상 영역에 포함되었다.³⁰⁾ 이러한 맥락에서 수잔 웬델은 장애 인물을 주체성 없는 무력한 존재이자 의존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으로만 범주화해 온 비장애 중심적 문학 담론의 한계를 지적했다.³¹⁾ 이러한 인식은 <한후룡전>의 서사 초반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작품 속 한후룡과 임허영은 ‘말질(末疾)의 병신’, ‘악병(惡病)’과 같은 비하적 표현으로 불리거나, 본인도 그러한 시각을 내면화하며 자조한다. 특히 부모들마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일무기취(一無可取)’라 여기며 철저히 부정하고 외면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냉대는 결국 이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 더 나아가 이들의 장애가 전생의 죄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이러한 부정적 시선을 가중한다. 한후룡은 문서를 잘못 다룬 죄로 시력을 잃었고, 임허영은 사해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은 죄로 하반신 장애를 얻었기 때문이다.³²⁾ 이러

29) 심귀연, 「기술시대의 인간과 장애에 대한 철학적 탐구」, 『거부당한 몸과 공존의 사유』, 한울, 2025, 115쪽.

30) 우현선,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본 장애」, 『영어영문학』 Vol.29 No.3, 미래영어영문학회, 2024, 12쪽.

31) 수잔 웬델, 『거부당한 몸-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그린비, 2012, 149쪽.

32) “후룡은 문서 그릇 닦근 죄로 폐하여 진세의 너쳐 땃목폐인이 되게호고 허영은 구름

한 설정은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이 아닌 도덕적 결함이나 인과응보의 산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지점은 집을 나선 두 인물이 서로의 장애를 보완하며 '쓸모없는 몸'을 '협력하는 몸'으로 재정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 신체를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역동적인 힘의 주체로 바라보게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관점이 신체와 환경의 얽힘을 중시하는 신유물론이다. 신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는 관계적이고 우발적인 존재로 이해된다.³³⁾ 이러한 관점은 비정상의 범주에 포함되어 차별받아 비인간으로 간주되 온 장애나 장애인을 신체적 차이를 변칙이나 기형으로 환원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⁴⁾ 따라서 이러한 시각으로 〈한후룡전〉을 재조명할 때, 우리는 기존의 서사적 규범 속에 가려져 있던 장애 신체의 능동성과 그 주체적인 역량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한후룡과 임허영의 몸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서로 얽힌 관계망 속에서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신체이다. 두 인물이 영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각기 다른 장애의 몸이 결합하여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며, 고난과 위기를 함께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난다. 따라서 한후룡과 임허영의 몸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장애를 고착된 한계로 규정해온 기존의 시각을 넘어 신체 간의 협업을 통해 발견되는 새로운 주체성과 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타고 스텔로 도망하여 도라을 줄을 모르미 안즌병신이 되게 하였더니 이제 죄를 사하여 구작을 회복호노라” 〈한후룡전〉 권지일.

33) 우현선, 위의 논문, 12쪽.

34) 우현선, 위의 논문, 12쪽.

<한후룡전>에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이중적 시선은 가정이라는 내부 공간과 가정 밖이라는 외부 공간에서 이들의 장애를 대하는 태도 차이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혈연 공동체(가정)가 이들을 외면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공간인 마을 공동체는 이들을 포용하며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호랑이를 잡는 과정에서 행인과 마을 사람들은 한후룡과 임허영을 편견 없이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리걸식하는 처지일 때도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연대를 보여주었다.³⁵⁾ 물론 마을 공동체의 지원에 장애인을 향한 시혜적 태도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을 타자화하여 조롱하거나 공동체 외부로 축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인 가족 내의 배타적인 시선과는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특히 한후룡과 임허영을 집 밖으로 내몬 것에 대한 가족들의 끊임없는 후회와 반성은, 장애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부각한다.³⁶⁾

이처럼 <한후룡전>의 장애에 대한 이중적 시선은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를 소설로 확장하며 형성된 특징이기도 하다. ‘결핍-협력-획금-보시-결

35) “겨유 쥬물너 소싱혀여 인스를 출히미 촌인을 불으니 모다왔거늘 기인이 촌인으로 더부러 범을 썩려 잡고 두 병신을 다리고 마을노 내려와 범을 관가의 밧치고 범 좁은 소유를 고흐니 지뵈 크게 괴특이 녀여 은즈 슈십관을 상스하니 마을 스람이 가져다가 허영을 준디, 허영이 밧지 아니하고 마을 스릅들을 난화 쥬니 중인이 그 두으희의 의기를 스랑하며 그 병신되를 불상이 녀여 집마다 밥을 쥬니 후룡 왓, 우리 양인이 세상의 뜰떡업는지라. 부피 심이 스랑치 아니시니 호물며 다른 스릅이야 일너 무엇허리요. 이제 이 스람의 밥을 두 번 먹으미 심히 울치 아닌지라.” <한후룡전> 권지일.

36) “하날이 쥬시를 씨닷지 못호고 즈식을 바려시니 설스 아모리 쓸씩 엷다호고 엷지 즈식을 니쳐 횡걸허다가 죽게 허리요. 인정의 박호미 엷지 여츠호노. 부인이 청츠의 씨다라 눈물을 머금고 디왓, 첩의 소견이 본디 엷튼고로 혼갓 괴로움만 생각호고 제말디로 허락허엿더니 군즈의 고명호신 말숨을 듯좁고 또 전후를 생각헌디 엷지 뉘웃츠미 엷스리잇고” <한후룡전> 권지일.

“님싱이 방성통곡(放聲痛哭) 왓, 무지호 즈식을 병신이라 호고 핏박혀여 니쳐 범의 밥을 숨으니 엷지 텃양을 면허리요 호고 도라와 쥬야로 호곡(號哭)호를 마지아니홀시.....” <한후룡전> 권지일.

핍해소'의 순차적 구성을 보이는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는 신체적 결핍보다 불교적 비유로 활용되면서 업, 윤회, 인과율, 인연, 연기 등의 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³⁷⁾ 해당 서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과 결합하여 <지성이와 감천이> 유형으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력'이라는 윤리적 당위성이 강조되었다.³⁸⁾ <한후룡전>은 이러한 전승 맥락 위에 주인공의 출생 서사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는 영웅적 일대기를 추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 내 장애를 가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구체화되었으며,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서는 장애를 가진 몸의 관계적 역동성과 능동적 실천이 선명하게 부각된 것이다. 19세기 말의 <한후룡전> 이후, 『대한매일신보』의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1905)이나 『대한민보』의 <병인간친회록>(1909)³⁹⁾ 등이 장애인의 시선에서 비장애인과 세태를 풍자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도 고발했음을 상기해 본다면, <한후룡전>의 가치가 더욱 선명해진다. 즉,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리고 근·현대로 이행하면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틀이 점차 강화된 것을 미루어본다면, <한후룡전>은 당대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장애를 가진 몸이 지닌 가능성과 긍정성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7) 신호림, 앞의 논문, 250쪽.

38) 신호림, 앞의 논문, 251쪽.

39) <병인간친회록>은 1909년 『대한민보』 제58호부터 제101호까지 연재된 작품으로, 절름발이·눈박이·언청이·난쟁이·앓은뱅이·귀머거리·소경 등 장애인들이 모여서 간친회를 설립하여 근대 전환기 붕괴 위기에 있는 시대를 재건하기 위해 열띤 토론과 연설을 펼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에 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각성 수단으로 사용하여 근대 전환기 사회의 혼란 속에 처한 장애인들의 현실과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잘 담아냈다. (구선정, 「근대전환기 장애인(障礙人)의 재현 양상과 시선 고찰-〈병인간친회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3집, 이화어문학회, 2024, 101~131쪽.)

2) 관계적 협업을 통한 영웅성의 변주

대체로 영웅소설 속 주인공들은 신체적 결점 없는 완벽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전형적인 영웅상을 구현해 왔다.⁴⁰⁾ 그러한 측면에서 <한후룡전>의 주인공들은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존의 영웅과 차별성을 지닌다. <유충렬전>의 주인공이 등에 새겨진 '대명국 대사마 대원수'라는 글자를 통해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영웅으로 태어난다면,⁴¹⁾ 이와 대조적으로 <한후룡전>의 주인공은 태몽에서부터 '깨진 기와'로 예고되며 가족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출생 이후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가정 내에서 '쓸모 없는 존재'로 전락하며, 영웅적 서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의 보호망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가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모친의 꿈에 노승이 '깨진 기와지만 귀중한 보물'이라고 하며 영웅의 숙명을 암시했지만 그 누구도 이들이 영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기대가 없었다는 점, 이들의 가출이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생존을 위한 실존적 선택이라는 점도 기존 영웅소설의 서사 문법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한후룡전>이 기존 영웅소설의 전형성을 탈피하는 결정적 지

40) 박윤지는 영웅소설에서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영웅의 얼굴이나 외형에 투영되어 주인공이 고귀하고 아름답게 형상화된다고 하였다. 이는 얼굴이나 외형으로 '도덕성'을 증명하길 바라는 독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다. (박윤지, 「영웅소설의 통속성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25, 200쪽.) 따라서 <한후룡전>의 두 주인공이 장애를 지닌 채 출생한다는 설정은, 기존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문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41) 영웅소설의 대표적 작품인 <유충렬전>의 이야기 세계는 어떠한 인물을 막론하고 영웅의 존재성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즉, 유충렬의 '영웅 되기'에 대한 외부의 기대와 확신이 반복되면서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송혜란, 「<유충렬전>에 나타난 영웅에 대한 인식 연구-수용적 관점」,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9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153쪽.)

점은, 영웅적 위업이 개인의 비범함이 아닌 ‘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된다는 데 있다. 이는 고립된 개인이 천부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결핍을 보완하는 관계적 연대를 통해 영웅성을 획득해가는 새로운 서사 문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한후룡과 임허영은 결핍된 신체의 협력을 통해 호랑이를 포획하고 금을 발견하는 성취를 이루었으며, 그 결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과와 나눔의 보상으로 신체를 회복한 이후에도, 이들의 영웅적 과업이 여전히 ‘공동의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도적 유필에게 함께 납치되어 나란히 그의 사위가 되는 설정은 이들을 운명공동체로 묶어주는 서사적 장치가 된다. 이후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탈출한 두 인물은 화악산 천보사에서 함께 공부하며 과거에 급제하여 각각 좌승지와 우승지에 오른다.⁴²⁾ 또한 유필이 횡성을 침략하자 각각 대제학과 부제학으로 출정해 그를 생포하고 변방을 평정하며⁴³⁾, 간신 이열창의 모함으로 닦친 대역죄의 위기 또한 함께 극복해낸다. 결국 이들은 나란히 좌승상과 우승상의 지위에 올라 태평성대를 구가한다.⁴⁴⁾ 이처럼 고난을 넘고 선택을 공유해 온 경험은 이들을 영웅의 반열에 올리는 결정적 토대가

42) “후룡이 허영과 혼가지로 턱서를 익이여 공부하고 밤이면 칼쓰기를 익이니 신출귀몰(神出鬼沒)하는 지죄 일취월장하더라.” <한후룡전> 권지일.

43) “후룡이 말을 치쳐 니다라 티아검을 두루고 크게 외여 왈, 적장은 썰니 나의 칼을 밧드라 디적이 분노하여 마즈 백화 불과 슈합의 후룡이 허영으로 더부러 뉴필을 싱급하여 합거의 가두고 운무산중의 니르러.....” <한후룡전> 권지일.

44) “상이 낭필의 크게 놀나시고 신기히 녀이스 곶오스디, 짐이 무삼 덕으로 경 등을 어든고 흐시고 즉시 후룡 허영 삼진 등 삼인을 불너 전일 혼암홀를 스펴흐시고 인하여 잔 잡아 권흐시며 공을 치하할시, 한후룡으로 좌승상을 흐이시고 남허영으로 우승상을 흐이시고 방삼진으로 좌각노티스를 흐이시고 도적의 죄를 스흐시고 비흐스 디제학을 흐이시고 후룡의 부인 뉴씨로 덩닐부인을 봉흐시고 허영의 부인 뉴씨로 숙닐부인을 봉흐시고 후룡의 부모 영국공을 봉흐시고 허영의 부모 위국공을 봉흐시고 영국공 부인으로 영의부인을 봉흐시고 위국공 부인으로 위의부인을 봉흐시고 기어공신은 각각 벼술을 도도시다.” <한후룡전> 권지일.

되었다. 신체 회복 이후의 ‘함께함’은 비록 장애 시기의 물리적 결합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윤리와 행동 양식이 내면화되어 지속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후룡전>은 주인공들이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관계적 주체’에서 ‘개별적 영웅’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웅성이란 끝까지 ‘함께 수행되는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영웅소설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후룡전>을 통해, 장애를 지닌 두 주인공이 각자의 신체가 지닌 고유성과 존재 간의 관계적 협업을 토대로 인물·사물·사건과 맺는 역동적인 관계망을 고찰하였으며, 그들이 영웅적 주체로 거듭나는 서사적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두 장애인의 몸은 극복의 대상이나 결핍의 상징이 아니라, 영웅이 생성되는 과정에 개입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동적 조건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장애인 몸이 관계적으로 얽혀 사회적 실천으로 뻗어 나가는 과정을 본 작품이 확연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 영웅적 활약 이전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과정 또한 상세히 서술하여 당대 사회의 차별적 시선도 폭로하였고, 가족의 반성과 주인공들의 영웅적 실천을 통해 장애를 향한 부정적 시선을 해체하고 차별의 논리를 무력화하는 면도 드러냈다. 그리고 장애 신체가 회복된 이후에도 영웅적 과업을 시종일관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영웅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은 <한후룡전>만이 지닌 독보적인 문학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즉, 장애를 지닌 주체들이 개별적 영웅으로 분리되지 않고, 고난의 시기에 장애의 몸을 바탕으로 구축한 협력과 관계적 윤리를 지속하며 영웅성을 공동으로 완성해가는 서사적 양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필사본 <韓厚龍傳一>, <韓厚龍傳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필사본 <한후룡전>, 정확성 소장.

<논문 및 단행본>

구선정, 「장애인 간 연대를 통한 치유—<한후룡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59~188쪽.

_____, 「<한후룡전>·<유화기연>·<영이록>에 나타난 ‘장애인’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241~278쪽.

_____, 「조선 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죄벌(罪罰)을 통해 본 소수자 혐오 양상과 그 의미—추모(醜貌)·귀물(鬼物)·유충(幼蟲)·병신(病身)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77~109쪽.

_____, 「근대전환기 장애인(障礙人)의 재현 양상과 시선 고찰—<병인간친회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63집, 이화어문학회, 2024, 101~131쪽.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의 연구』, 교학연구사, 1985, 398~401쪽.

김미리, 「<한후룡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07쪽.

박윤자, 「영웅소설의 통속성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25, 1~258쪽.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視線)—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309~361쪽.

송혜란, 「<유충렬전>에 나타난 영웅에 대한 인식 연구—수용적 관점」,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9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145~171쪽.

수잔 웬델, 「거부당한 몸—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강진영·김은정·황지성 옮김, 그린비, 2012, 1~348쪽.

신호림, 「소경과 앓은뱅이 서사의 불교적 의미와 구비문학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225~256쪽.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24, 1~181쪽.

_____, 「기술시대의 인간과 장애에 대한 철학적 탐구」, 『거부당한 몸과 공존의 사유』, 한울, 2025, 1~308쪽.

우현선,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본 장애」, 『영어영문학』 Vol.29 No.3, 미래영어영문학회, 2024, 1~19쪽.

임지연·박신현 외, 『신유물론: 몸과 물질의 행위성』, 필로소픽, 2022, 292쪽.

제하나, 「고전 서사 속 장애 담론의 비장애중심성 탐색: <한후룡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6집, 한국고소설학회, 2023, 241~280쪽.

ABSTRACT

A Study on Heroism in Hanhu-ryong-jeon
-Focusing on the Material Specificity of Disabled Bodies
and Relational Collaboration-

Koo, Sun-jung

This study examines the classic Korean novel Hanhu-ryong-jeon to trace the process through which two disabled protagonists expand the boundaries of their existence through their material specificity and transform into heroic subjects through the material entanglement of their bodies. Contrasting with existing scholarship that has conventionally interpreted this work as a “narrative of overcoming disability” focused on resolving physical deficiency, this paper re-evaluates the literary value of disabled bodies by highlighting the “relational collaboration” and “active agency” manifested through their somatic interactions. To this end, the process of heroism formation through relational collaboration is analyzed across four distinct stages.

First, in the stage of mutually complementary combination, the study examines how the blind Han Hu-ryong and the paralyzed Im Heo-yeong compensate for each other’s physical limitations, transforming into a new agential subject that merges “seeing eyes” with “walking legs.” Second, in the stage of active realization, the paper demonstrates that their subduing of a tiger and acquisition of gold are not accidental windfalls, but rather the fruits of rigorous somatic and ethical collaboration. Third, in the stage of the expansion of social values, the study analyzes how the broadening of their relational network through material almsgiving (jaebosi) lays the foundation for bodily recovery, thereby deriving the significance of the body functioning within relationships, independent of disability status. Fourth, in the stage of the spatial rite of passage, the paper verifi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protagonists acquire

material and transcendent authority via the threshold of the “tomb,” ultimately being recognized as heroic subjects tasked with public miss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captures the dual gaze surrounding disabled bodies. While realistically depicting the discriminatory gaze of the family and society, the text subverts contemporary limitations by underscoring the relational dynamics and agency of disabled bodies through the protagonists’ journey. Second, it highlights the emergence of a hero through relational collaboration. Even after recovering their physical health and becoming “whole individuals (wanin),” the protagonists in Hanhu-ryong-jeon continue to perform their heroic tasks jointly from beginning to end. This demonstrates that heroism is achieved not through an individual’s extraordinary brilliance, but through “relational solidarity.” In conclusion, by treating the disabled body not as a mere defect but as a foundation for solidarity, and by depicting the co-performance of heroism through relational collaboration, Hanhu-ryong-jeon departs from the conventional tropes of heroic novels and presents a new paradigm of heroism, thereby holding significant literary-historical value.

Key Words Disabled Person, Disabled Body, Relational Collaboration, Heroism, New Materialism, Hanhu-ryong-jeon

논문투고일: 2026.04.23.

심사완료일: 2026.05.13.

게재확정일: 2026.05.18.